

# 퇴직연금 당겨 집사는 직장인...중도인출자 30% 급증

### 지난해 6만3783명...80% 이상 주택 구입·임차비 마련 목적 금리 부담에 대출 대신 활용...인출 금액 전년비 40% 늘어나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해 사용한 '중도인출자'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하면서, 4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들이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큰 대출 대신 직접 퇴직연금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중도인출자 중 80% 이상은 주택 구입 또는 주거 임차비 마련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썼

으로 집계됐다. 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금융상품인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중 역시 8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2023년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6만3783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이들이 인출한 퇴직연금 규모는 2조4404억원으로 전년보다 40% 많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 및 금액 모두 지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4년만에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직장 및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은 제자리 또는 하락세를 걷는 가운데, 주택 구입 등 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중도인출자들의 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 구입'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순으로 높았다. 결국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80.2%는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쓴 셈이다.

중도인출자들을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만5539명(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만1312명

·33.7%), 50대(4645명·13.8%), 29세 이하(1441명·4.3%), 60세 이상(675명·2.0%) 순이었다. 본격적으로 '집 마련'에 나서서 20·30대 청년층들만 전체의 과반수 이상(50.5%)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퇴직연금까지 당겨 집을 마련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40대 중도인출자의 경우 전년(7762명)에 견줘 45.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381조원 규모로 1년 전(335조원)보다 13.9%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제도 유형별 비중을 보면 확정급여형이 53.7%로 가장 높았고, 확정 기여형(25.9%), 개인형 퇴직연금(20.0%) 순이었다. 전년에 비하면 개

인형 퇴직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포인트(p)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액을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80.4%를 차지했다. 원리금보장형은 원금을 보장해 안정성은 높은 대신 기대 수익률이 낮다. 원리금보장형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은 실적배당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보장형은 5.1%p 감소한 반면 실적배당형은 1.6%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당겨 쓰기에 앞서 수익 창출을 중요시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정보보호 국제표준 취득...글로벌 보안 경쟁력 입증

### 'ISO/IEC 27001' 인증 획득 'ISMS', 'ISMS-P' 심사 통과

광주은행이 최근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 'ISMS-P'의 인증과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 광주은행은 조직·인적·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의 4개 영역, 총 93개 항목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득했다.

또 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통합 인증 제도로,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인증을 취득한 뒤 5년 연속 유지·갱신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인증 등의 취득 및 갱신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광주은행이 개인신용정보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정보보안 체계 선진화' 구축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인증 취득·갱신을 통해 광주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광주신세계 "7가지 맛 하트 티라미수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16일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맛의 '하트 티라미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하트 티라미수를 판매한다. 소비자들의 맛 취향별로 당도가 가장 낮은 오리지날부터 레스스윗, 솔타카리멜, 피스타치오, 레몬 얼그레이, 쿠기앤밀크, 밤 등 7가지 맛의 티라미수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GICON 지원 콘텐츠 기업 '레인보우 버블잼 시즌1' 애니메이션 부문 장관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원하는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 '레인보우 버블잼 시즌1'이 '2024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콘텐츠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작품과 관계자를 발굴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지난 11일 서울시 삼성공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레인보우 버블잼 시즌1은 지난해 GICON이 컴퓨터 그래픽스(CG)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콘텐츠 전문기업 ㈜웹프라이어애니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물로, 지난해 8월 한국 EBS 채널과 중국 텐센트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방영됐다.

특히 해당 작품은 한국 넷플릭스 키즈 시리즈물



에서 인기순위 2위, 중국 텐센트비디오 여아몰 인기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시즌2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될 계획이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지난해 GICON이 지원한 사업의 성과로 지역 콘텐츠 기업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무인 광역제초기 도입

### 담당자 시연회...다음달부터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가 오는 2025년부터 저수지 제방 등 경사면 제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형 경사면 광역제초기' <사진>를 도입, 운영한다.

앞서 전남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농업용 저수지들의 잡초 및 잡목 제거와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등을 위해 작업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광역제초기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경사면 작업 장비의 특성상 전복 등이 우려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남본부는 무인형 광역제초기를 구입하고, 지난 5일 각 지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형 광역제초기는 최대 100m 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작업환경에 맞춰 궤도 폭 조정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작업구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전복 및 깔날 이탈 등



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본부는 이처럼 유지관리장비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설물 관리, 제초 작업, 용·배수로 준설작업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형식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AI 미래채움강사 네트워크 데이' 행사

### 활동 강사들 경험과 지식 공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여수에서 전남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SW)와 AI(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6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전남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강사(이하 '강사') 네트워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강사 네트워크 데이는 진흥원의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활동 중인 지역 강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전라남도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생, 우수 SW·AI 수업과정인 시상식, SW·AI 교수법 워크숍, 강사 네트워크링 한마당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강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며 "진흥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전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전남 지역 SW교육 불균형 해소와 SW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SW미

래채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 SW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47명의 강사를 배출하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10월 통화량 40조 증가...예·적금에 자금 유입

### 통화량 17개월째 증가세

경기 예·적금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10월 통화량이 4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110조4000억원으로 9월보다 1.0%(39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상품별로는 미니마켓펀드(MMF), 정기 예·적금, 금전신탁, 금융채가 각 7조2000억원,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 3조6000억원 불었다. 기타 통화성 상품에서는 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한은 관계자는 "대규모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들의 선제적 예금 유치 노력 등으로 정기 예·적금이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MF와 금전신탁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의 재유입과 투자 대기성 자금 등에 따라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 통화성 상품의 경우 수출거래 대금 유입으로 외화 예수금이 증가했으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익성 저하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는 제한은 분석이다.

경기 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5조7000억원)와 기업(+7조3000억원), 기타금융기관(+21조7000억원)에서 유동성이 늘었지만, 기타 부문(-1조8천억원)에서는 줄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8.97 (-5.49)
↑ 코스닥	698.53 (+4.80)
↑ 금리(국고채 3년)	2.553(+0.012)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37.10 (+4.10)

## 광주경총 "정국 안정 위해 모든 역량 결집해야"

광주경총이 광주광역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라 경제계에 물러날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민의 협력과 결집을 당부했다.

광주경총은 16일 양진석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제 위기 극복과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제적 신용도 하락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며 국내 경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광주경총은 "국제적 분쟁과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이 국가 성장을 견인했으며, 광주·전남

주력 산업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되며 이는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여야 정치 합의를 통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드리며, 광주·전남에도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